

광주형 주택, 가로 마당 중심 주거공간 ‘마을공동체’ 형성

‘비콘 플랫폼’ 당선작 선정
계층·세대간 소통 커뮤니티
2022년 착공·2024년 입주

광주형 평생 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의 현실설계공모에서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창, ㈜건축사사무소휴먼플랜이 공동 응모한 ‘Beacon Platform(비콘 플랫폼: 빛고를 복합주거플랫폼)’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콘 플랫폼은 광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평생주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빛고을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할다고 있다. 당선작은 다양한 개별공간인 단위세대를 가로와 마당으로 엮어가며 수직, 수평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건축적인 공간들은 이웃과 자연스런 마주침을

유도하며 시대적, 사회적 특성과 부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에서 벗어난 변화감 있는 입면과 배치계획, 그리드 모듈에 의한 다양한 평면 및 단위세대 계획과,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부지의 도시공간적 측면에서 주변 아파트 단지, 대표도서관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준비를 하고 있는 문화시설(구 상무소각장),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하는 개방된 외부공간 구성 및 열린 통행축 계획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만 거주하는 낙후된 아파트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계층간, 세대간 소통하는 혁신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광주형 평생주택의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우수한 복합주거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선작에는 용역비 23억4,100만원 상당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이 주어지며 우수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시와 도시공사는 광주형 평생주택 시

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2022년 공사 착수,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광주형 평생주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상무소각장 인근 나대지에 장기공공임대 전국 최초로 중형평형(전용 85㎡ 이하)을 포함, 총 460세대 규모로 사업비 1,371억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작품이 선정되었다”면서 “광주형 평생주택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살고 싶은 복합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에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복지부 공모...72억 투입

전남지역 장애아동들도 체계적인 장애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아동을 위한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

공공 재활의료서비스 및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국비와 지방비 총 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4년 개원을 목표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재활의학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목포중앙병원 부지 내 지상 3층, 지하 1층, 총 24병상 규모다. 로봇치료실, 유아운동치료실 등 필수

소아장애훈련시설 및 모자실, 어린이도서관 등 센터를 찾는 가족을 위한 부대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지역 내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적절한 치료 및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알맞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장애아동 재활 및 통합서비스의 근원적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거주지에서 최적화된 맞춤형 아동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를 함으로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해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섬·어촌지역 활력 토론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섬·어촌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위기 대응 전략 모색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김종덕 원장 직무대행)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 의원은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 문제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질적 이

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섬·어촌 지역의 신활력을 불러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이 최근 지자체 금고의 약정이율 적정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조7,000억원(가금 제외)에 달하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

은행에 예치돼 운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는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 함으로써 적정성을 확보하고 현금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회계연도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평균 잔액은 66조 9,00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조 1,200억원으로 이자율은 1.66%이다.

조 의원은 “금고의 적정 약정이율 공고는 지방의회의 금고 심의기능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높일 것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방 의료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주시 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2017년부터 추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 때문에 전국적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있고, 올해 초 부산, 대전, 전주 지방의료원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강 의원은 “긴급재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수행기간만 2년여

가까이 소요되는 예타가 광주의료원 조기 건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타면제로 광주의료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김 지사, 롯데케미칼에 신산업 투자 요청

이영준 대표 면담...“부생수소 최대 산지 여수산단 추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대표를 직접 찾아가 논의하는 등 전남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광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와 면담하고 전남 광양만권에 대한 신산업 투자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전남에 청년을 돌아오게 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첨단·대규모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김 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국가산단 등 5개 공장과 해외 26개 생산기지를 두고 연매출 12조 원 이상의 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국내 대표 석유화학 기업이다. 김 지사는 “롯데케미칼이 여수공장 운영 등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기여해 감사하다”며 “대규모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고기능

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문에 대한 광양만권 조기 투자”를 요청했다. 또 “최근 롯데케미칼이 ‘친환경수소성장 로드맵’에서 제시한 미래 수소 분야 신사업의 출발지로, 부생수소 생산량이 국내 최대인 여수산단을 적극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남에서의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롯데케미칼 이영준 대표와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남도 제공

OUR BREWERY

오래전 바다였던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소주가 옵니다”

세계 3대 소금으로 완성된
히말라야 핑크솔트 / 신안 토판염 / 안데스 레이크 솔트

SALT 레시피 소주

바다로부터, 보해

정교·재미·음주는 뇌를 즐겁게, 기억력 향상이나 체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가정의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